

**Work Sampling을 이용한 국민학교 급식의
작업분석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식생활학과
안태현*, 이숙영

본 연구는 국민학교 급식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서울 소재 국민학교 3개소를 선정하여 일반적인 작업측정방법 중의 하나인 워크 샘플링(work sampling)을 이용하여 작업기능에 따른 급식인력의 작업비율과 생산성 등을 분석하였다.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양사의 평균작업비율에 있어서는, 직접작업기능이 40.4%, 간접작업기능이 29.9%, 자연시간이 29.8%로 직접작업기능이 가장 높았다. 직접작업기능의 작업비율로써 일반적인 사무가 30.9%, 검수가 9.5%이었다.
2. 제빵기사의 평균작업비율에 있어서는, 직접작업기능이 73.5%, 간접작업기능이 6.3%, 자연시간이 20.1%였으며, 직접작업기능으로써 조리가 41.8%, 운반이 15.9%, 세척이 8.5%이었다.
3. 작업원의 평균작업비율에 있어서는, 직접작업기능이 78.0%, 간접작업기능이 0.1%, 자연시간이 22.0%로 직접작업기능이 가장 높았다. 직접작업기능으로써 조리가 32.3%, 세척이 27.8%, 운반이 13.8%이었다.
4. 시간대별 작업비율을 보면, 영양사의 경우 오전의 작업비율이 오후보다 높았고 점심시간에도 업무가 계속 이루어졌으며, 제빵기사의 경우는 주로 오전에만 작업이 있었다. 작업원의 경우는 각 급식소의 작업흐름에 따라 일정한 휴식이 급식 후에 있었으며 협력 학부모를 활용하는 경우 총 작업시간이 1시간정도 짧았다.
5. 작업시간당 급식수는 평균 32.6식이었고, 1인분 제공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평균 1.8분이었다.